

가락국기(駕洛國記) 註 474 문종대(文宗代) 註 475 대강(大康) 註 476 연간에 금관(金官) 지주사(知州事) 註 477의 문인(文人)이 지은 것으로 이제 그것을 줄여서 신는다.

개벽 이후로 이곳에는 아직 나라의 이름이 없었고 또한 군신(君臣)의 칭호도 없었다. 이때에 아도간(我刀干)·여도간(汝刀干)·피도간(彼刀干)·오도간(五刀干)·유수간(留水干)·유천간(留天干)·신천간(神天干)·오천간(五天干)·신귀간(神鬼干) 등 아홉 간(干) 註 478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는 추장(酋長)으로 백성들을 통솔했으니 모두 100호 註 479, 7만 5,000명이었다. 대부분은 산과 들에 스스로 모여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곡식을 먹었다.

후한(後漢)의 세조(世祖) 광무제(光武帝) 註 480 건무(建武) 註 481 18년 임인 3월 계육일(稷浴日) 註 482에 살고 있는 북쪽 구지(龜旨) 註 483 이것은 산봉우리를 일컫는 것으로 십봉(十朋)이 엮드린 모양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부르는 것이 있었다. 백성 2, 3백 명이 여기에 모였는데 사람의 소리 같기는 하지만 그 모습을 숨기고 소리만 내서 말하였다.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아홉 간(干) 등이 말하였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 말하였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구지입니다.” 또 말하였다. “황천(皇天)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가서 나라를 새로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여 이런 이유로 여기에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봉우리 꼭대기의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거복아 거복아,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라고 하고, 뛰면서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뛸게 될 것이다.”

구간들은 이 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러러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다. 그 줄이 내려온 곳을 따라가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합(金合)을 발견하고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 알 여섯 개가 있었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하여 함께 백번 절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싸서 안고 아도간(我刀干)의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아두고 그 무리들은 각기 흩어졌다. 12시간이 지나 註 484 그 이튿날 아침에 무리들이 다시 서로 모여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 여섯 알은 화해서 어린 아이가 되어 있었는데 용모(容貌)가 매우 흰칠하였다. 이에 이들을 평상 위에 앉히고 여러 사람들이 절하고 하례(賀禮)하면서 극진히 공경하였다. (이들은) 나날이 자라 10여 일이 지나자 신장(身長)은 아홉 자나 되었으니 은(殷)의 천을(天乙) 註 485과 같고, 얼굴은 용처럼 생겼으니 한(漢)의 고조(高祖)와 같고, 눈썹에는 팔채(八彩)가 있으니 당(唐)의 요(堯, DB주석: 원문의 高는 고려 定宗의 이름 '堯'의 避諱)와 같고, 눈동자가 겹으로 되어 있으니 우(虞)의 순(舜)과 같았다. 그달 보름에 왕위(王位)에 올랐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首露) 註 486라고 하였다. 혹은 수릉(首陵) 수릉은 죽은 후의 시호이다이라고도 한다.

나라 이름을 대가락(大駕洛)이라 하고 또한 가야국(伽耶國)이라고도 하니 곧 여섯 가야(伽耶) 註 487 중의 하나이다.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각 가서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니 동쪽은 황산강(黃山江), 서남쪽은 창해(滄海), 서북쪽은 지리산(地理山), 동북쪽은 가야산(伽耶山)이며 남쪽은 나라의 끝이었다.

그는 임시로 대궐을 세우게 하고 거처하면서 다만 질박(質朴)하고 검소하니 지붕에 이은 이영을 자르지 않고, 흙으로 쌓은 계단은 3척이었다.

즉위 2년 계묘 정월(43년)에 왕이 말하기를, “내가 서울을 정하려 한다”라고 하고 이내 임시 궁궐의 남쪽 신답평(新畚坪) 이는 옛날부터 묵은 밭인데 새로 경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답자(畚字)는 속자(俗字)이다.에 나가 사방의 산악(山嶽)을 바라보고 좌우 사람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이 땅은 협소(狹小)하기가 여뀌 앞과 같지만 수려하고 기이하여 16나한(羅漢) 註 488이 살 만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1에서 3을 이루고 3에서 7을 이루니 註 489 7성(聖)이 살 곳은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 이곳에 의탁하여 강토(疆土)를 개척해서 마침내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곳에 1,500보 둘레의 성과 궁궐(宮闕)과 전우(殿宇) 및 여러 관청의 청사(廳舍)와 무기고(武器庫)와 곡식 창고의 터를 만들어 두었다. 일을 마치고 궁으로 돌아와 두루 나라 안의 장정, 인부, 공장(工匠)들을 불러 모아서 그달 20일에 성 쌓는 일을 시작하

여 3월 10일에 공사를 끝냈다. 그 궁궐(宮闕)과 옥사(屋舍)는 농사일에 바쁘지 않은 때를 기다려 이용하니 그 해 10월에 비로소 시작해서 갑진 2월(44년)에 완성되었다. 좋은 날을 가려서 새 궁으로 거동하여 모든 정사를 다스리고 여러 일도 부지런히 보살폈다.

연관콘텐츠

사료로 보는 한국사 > 삼국 시대 > 신비로운 건국 이야기의 세계 > 금관가야의 건국 이야기

- 註 474 <가락국기>는 고려 문종조 태강연간(1075~1084)에 금관지주사인 문인(文人)이 지은 가락국(駕洛國)의 사기이다. 가락국은 가야의 제 국가 중의 한 나라로 가락국기중에서 말한 과 같이 대가야 또는 가야국이라 하여 육가야 중의 일국이라 하고 또 <<삼국유사>> 오가야조에서는 금관가야라고 하였으며 <<삼국사기>>에서는 금관국이라고 하고 종국사료(<<삼국지(三國志)>>와 <<후한서>> 등)에서는 '狗(拘)那韓國'이라고 하였으며 일본사료(<<일본서기(日本書記)>>와 <<고사기(古事記)>> 등)에서는 가야국(加羅國), 임나국(任那國), 임나가라(任那加羅)의 초기 주국으로 지금의 김해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라이다(정중환, 「駕洛國記의 文獻史的 考察」, <<가야문화>> 3, 가야문화연구원, 1990, 12쪽).
- 註 475 고려 제11대 왕으로 생몰년은 1019~1083년이고, 재위 기간은 1046~1083년이다.
- 註 476 요(遼) 도종(道宗)의 연호로 1075년~1085에 사용하였다.
- 註 477 김해 지방은 고려시대에 들어와 여러 차례 그 명칭이 바뀌었다. 통일신라시대에 금관소경(金官小京), 김해소경(金海小京) 등으로 불리다가 고려태조 23년(940)에 김해부로 바뀌었고, 이후 임해현(臨海縣)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임해군이 되었다 광종 22년(971)에 금주도호부(金州都護府)로 승격되었고, 목종 3년(1000)에는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로 개칭되었다. 현종 3년(1012)에 금주(金州)로 개칭되었고 문종대에는 금주라는 명칭으로 불리었다(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역주 가야사자료집성>> 제1권, 2004, 96쪽).
- 註 478 구간(九干)에 대하여 일찍이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 상에 인용되어 있는 김유신비문(金庾信碑文)에 김유신의 출자를 설명하는 가문에 '수로왕이 구지봉에 올라 가락구촌(駕洛九村)을 바라보았다'라고 보임으로써 수로왕의 출현 이전의 가락구촌이 있었다는 전승이 비교적 오래전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884년에 건립된 가락국태조능 숭선전비(駕洛國太祖陵崇善殿碑)에 구부(九部), 구간(九干), 구경(九卿) 등으로 표기된 것도 이러한 전승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사료에서 구간이 추장(酋長)이라고 표기되었듯이 가락구촌에 지도자들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이영식, 「九干社會와 駕洛國의 成立」, <<가야문화>> 7, 가야문화연구원, 1994, 33쪽). 구간사회를 국가형성론 상에서 볼 때 추장사회(Chiefdom)의 단계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으며(이종욱, <<신라국가형성사연구>>, 일조각, 1982, 19쪽 | 이흥조, 「한국고인돌사회와 그 양식」, <<동방학지>> 23~24, 1980, 306쪽), '읍락사회'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金延鶴, 「伽椰의 國家形成」, <<가야문화>> 1, 16~17쪽). 그리고 김태식은 구간은 김해 지역에 산재하던 소단위 세력집단들인 구촌의 추장들로서, 그들은 수로의 강림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재지 세력으로 보았다(김태식, <<가야연행사>>, 일조각, 1993, 35~36쪽).
- 註 479 여기에 대해서는 두 세가지의 견해로 나뉘고 있다. 이종욱과 三品彰英은 一百戶의 '百'자는 '萬'자의 착오로 보고있고(이종욱, <<신라국가형성사연구>>, 일조각, 1982 |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証>> 中, 培書房, 1979, 315쪽), 이영식의 경우는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 변진조의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萬戶」 라는 기사를 근거로 4천~5천 家로 보고 있다(이영식, 「구간사회와 가락국의 성립」, <<가야문화>> 7, 가야문화연구원, 1994).
- 註 480 후한을 세운 황제로 재위 기간은 25년~57년이다.
- 註 481 후한 광무제의 연호로 25년~55년에 사용하였다.
- 註 482 계육(禊祿)이란 계육(禊祿) 계음연(禊飲宴)이라고 한다. 계는 불계(祓禊)란 말이다. 불계는 제계목욕하여 심신을 맑게 하고 천지신명에게 양재구복(禳災求福)의 치성을 드리는 제의를 말한다. 한나라 대의 예제에는 3월 상사(上巳)에 특히 동으로 흐르는 물에서 심신의 숙구(宿垢)를 제거하였으나 위(魏) 이후로는 상사일을 다만 3일로 정하여 춘계를 행하게 되었다. 춘계라 함은 계춘 즉 3월 3일에 행하는 계육을 말함이니 이에 대하여 7월 14일에 행하는 계육을 추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계육도 동으로 흐르는 물에서 행한다고 한다(정중환, 「가락국기의 건국신화」, <<가야문화>>4, 가야문화연구원, 1991, 112쪽).
- 註 483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김해도호부산천조(金海道護府山川條)에 구지봉(龜旨峰)이 보이고, <<삼국유사>> 권2 기이 2 수로부인조(水路夫人條)에도 관련기사가 보인다. 원시신앙에서 구(龜)를 영적존재로 여겼을 것이며, 구지봉을 '굿'하는 봉우리로 한자로 음차한 견해도 있다(정중환, 「가락국기의 건국신화」, <<가야문화>>4, 가야문화연구원, 1991, 115쪽).
- 註 484 혈진(浹辰)은 심이지의 자(子)로부터 해(亥)에 이르는 날짜를 가리키는 것으로 '열이름'로 볼 수도 있다(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역주 가야사자료집성>> 제1권, 2004).
- 註 485 은(殷)의 탕왕(湯王)을 가르킨다.
- 註 486 수로는 가락의 시조이나, 김태식은 구간(九干)과 같은 재지 세력의 한 사람인지, 아니면 당시에 다른 곳에서 온 이주민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대체로 이주민이거나 또는 이주민으로서의 명분을 아직 잃지 않은 사람으로 추정하였고(김태식, <<가야연행사>>, 일조각, 1993, 36쪽), 이병도는 수로를 가락 최초의 군장이 아니라고가락이 소위 육가야의 맹주국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을 때의 군장이라고 보았으며, 가락의 구간과 부원들이 대화하여 일인의 군장을 선출 추대한 사회에 있어 육란=육인이 나타났다는 것은 모순이라 파악하고 있다(이병도, 「수로왕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315~316쪽).
- 註 487 육가야나 오가야나 하는 것은 결국 연맹단체를 말한 것으로 맹주국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제국을 말할 때에는 오가야라 하고, 맹주국까지 합하여 말할 때에는 육가야라고 할 수 있다. 가락국기에서는 수로왕의 금관가야를 제외한 나머지를 오가야라고 하였고, <<본조사략(本朝史略)>>에서는 대가야를 제외한 나머지를 오가야라고 하고 있다(이병도, 「수로왕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311~313쪽).
- 註 488 석가의 16제자. 영세에 살면서 불법을 보호한다고 한다.
- 註 489 오행설에서 숫자1을 상징하는 물(水)로부터 3을 상징하는 나무(木)가 나오고, 그 나무에서 숫자 7을 상징하는 불(火)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이는 후대의 율색 일 뿐 수로왕 당대의 인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역주 가야사자료집성>> 제1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4, 99쪽).

주제분류	정치 > 왕실 > 국왕 > 신상 정치 > 왕실 > 국왕 > 활동(결혼·통치) 정치 > 신이 > 기타 > 소리 사회 > 인구 > 생로병사 > 출산 정치 > 왕실 > 국왕 > 국명·연호 정치 > 왕실 > 궁궐 > 殿·門·閣·堂·樓·臺·亭·房
색인어	이름 :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귀간, 광무제(, 천을, 고조, 오, 순, 수로, 수릉 지명 : 구지, 황산강, 지리산, 가야산, 신답령 서명 : 가락국기 국명 : 후한, 은, 한, 당, 우, 가야국, 가야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수로왕이 탈해를 술법으로 극복시키다

이때 갑자기 완하국(琬夏國) 함달왕(含達王) 註 490의 부인(夫人)이 임신을 하여 달이 차서 알을 낳았고, 그 알이 화하여 사람이 되어 이름을 탈해(脫解) 註 491라고 하였다. 이 탈해가 바다를 따라 가락국에 왔다. 키가 3척이고 머리 둘레가 1척이었다. 기꺼이 대궐로 나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고자 왔다”라고 하니 왕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나에게 명해서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은 장차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 함이니, 감히 하늘의 명을 어기고 왕위를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또한 우리나라와 백성을 너에게 맡길 수도 없다.” 탈해가 말하기를 “그러면 술법(術法)으로 겨루어 보겠는가”라고 하니 왕이 좋다고 하였다. 잠깐 사이에 탈해가 변해서 매가 되니 왕은 변해서 독수리가 되었고, 또 탈해가 변해서 참새가 되니 왕은 변해서 새매가 되었다. 이때에 조금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탈해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자 왕도 역시 전 모양이 되었다. 탈해가 이에 옳되려 항복하고 말하기를 “내가 술법을 겨루는 곳에서 매가 독수리에게, 참새가 새매에게 잡히기를 면하였는데, 이는 대개 성인(聖人)이 죽이기를 미워하는 어진 마음을 가져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왕과 더불어 왕위를 다투는 진실로 어렵습니다.” 곧 왕에게 절을 하고 하직하고 나가서 이웃 교외의 나루 註 492에 이르러 중국에서 온 배가 와서 정박하는 수로(水路)로 해서 갔다. 왕은 마음속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난을 꾀할까 염려하여 급히 수군(水軍) 註 493 500척을 보내서 쫓게 하니 탈해가 계림(鷄林)의 국경으로 달아나므로 수군은 모두 돌아왔다. 여기에 실린 기사(記事)는 신라의 것과는 많이 다르다.

- 註 490 <<삼국유사>> 권1 기이편 탈해왕조와 같은 책 왕력편에서는 완하국(琬夏國)을 용성국(龍城國), 정명국(正明國), 화하국(花廈國)이라 하고, 그 나라는 왜국의 동북쪽 1500리 되는 곳에 있다고 한다(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1 쪽).
- 註 491 신라의 제4대 임금으로 재위 기간은 57년~80년이다. 토해(姓解)라고도 하였다.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에 의하면 서기전 19년, <<삼국유사>> 권2 기이편 가락국기에 의하면 서기 44년경에 바다를 통하여 금관국을 거쳐 신라에 도착하여 남해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유리왕을 이어 즉위하였다.
- 註 492 나룻배로 건너다니는 곳이다.
- 註 493 배를 타고 싸우는 군대이다.

주제분류	정치 > 왕실 > 국왕 > 활동(결혼·통치) 사회 > 인구 > 생로병사 > 출산 정치 > 신이 > 기탁 > 기탁
색인어	이름 : 함달왕, 탈해 국명 : 완하국, 신라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수로왕이 아유타국의 공주를 왕후로 맞이하다(0048년 07월 27일(음))

건무(建武) 24년 무신 7월 27일에 구간(九干) 등이 조회할 때 아뢰기를 “대왕이 강령하신 이래로 아직 좋은 배 필을 얻지 못하셨으니 청컨대 신들의 집에 있는 처녀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골라서 궁중에 들여보내어 향려가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짐이 여기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니 짐에게 짝을 지어 왕후(王后)를 삼게 하는 것도 역시 하늘의 명령일 것이니 경들은 염려 말라”라고 하고, 드디어 유천간(留天干)에게 명하여 경주(輕舟)를 이끌고 준마(駿馬)를 가지고 망산도(望山島)^{註 494}에 가서 서서 기다리게 하고, 신귀간(神鬼干)에게 명하여 승점(乘站)^{註 495} 망산도는 서울 남쪽의 섬이고 승점은 연하(輦下)의 국(國)이다.으로 가게 하였다.

갑자기 바다의 서남쪽에서 붉은 색의 돛을 단 배가 붉은 기를 매달고 북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유천간 등은 먼저 망산도 위에서 햇불을 올리니 곧 사람들이 다투어 육지로 내려 뛰어왔다. 신귀간은 이것을 보고 대궐로 달려와서 그것을 아뢰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여 이내 구간(九干) 등을 찾아 보내어 목련(木蓮)으로 만든 키를 바로잡고 계수나무로 만든 노를 저어 그들을 맞이하게 하였다. 곧 모시고 대궐로 들어가려 하자 왕후가 이에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과 본래 모르는데 어찌 감히 경솔하게 서로 따라가겠는가”라고 하였다. 유천간 등이 돌아가서 왕후의 말을 전달하니 왕은 그렇다고 여겨 유사(有司)를 이끌고 행차하여, 대궐 아래로부터 서남쪽으로 60보쯤 되는 곳의 산 주변에 장막을 쳐서 임시 궁전을 설치하고 기다렸다. 왕후는 산 밖의 별포(別浦) 나루에 배를 대고 땅으로 올라와 높은 언덕에서 쉬고, 입고 있는 비단바지를 벗어 폐백으로 삼아 산신령(山神靈)에게 바쳤다. 그 밖에 시종한 잉신(媵臣) 두 사람의 이름은 신보(申輔)·조광(趙匡)이고, 그들의 아내 두 사람의 이름은 모정(慕貞)·모량(慕良)이라고 했으며, 노비까지 합해서 20여 명이었다. 가지고 온 금수능라(錦繡綾羅)와 의상필단(衣裳疋緞)·금은주옥(金銀珠玉)과 구슬로 된 장신구들은 이루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왕후가 점점 왕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니 왕은 나아가 그를 맞아서 함께 유궁(帷宮)으로 들어왔다. 잉신 이하 여러 사람들은 섬돌 아래에 나아가 뵈고 곧 물러갔다. 왕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잉신 내외들을 인도하게 하고 말하였다. “사람마다 방 하나씩을 주어 편안히 머무르게 하고 그 이하 노비들은 한 방에 5, 6명씩 두어 편안히 있게 하라.” 난초로 만든 음료와 혜초(蕙草)로 만든 술을 주고, 무늬와 채색이 있는 자리에서 자게 하고, 옷과 비단과 보화도 주었고, 군인들을 많이 모아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였다.

이에 왕이 왕후와 함께 침전(寢殿)에 있는데 왕후가 조용히 왕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유타국(阿踰陀國)^{註 496}의 공주로 성은 허(許)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16살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금년 5월에 부왕과 황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젯밤 꿈에 함께 황천(皇天)을 뵈었는데, 황천은 가락국의 왕 수로(首露)라는 자는 하늘이 내려 보내서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곧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것이 이 사람이다. 또 나라를 새로 다스림에 있어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경들은 공주를 보내서 그 배필을 삼게 하라 하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갔다. 꿈을 깬 뒤에도 황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너는 이 자리에서 곧 부모를 작별하고 그곳을 향해 떠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배를 타고 멀리 증조(蒸棗)를 찾고, 하늘로 가서 반도(蟠桃)를 찾아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용안(龍顏)을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자못 성스러워서 공주가 멀리에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신하들이 왕비를 맞으라는 청을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제 현숙한 공주가 스스로 왔으니 이 사람에게는 매우 다행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와 혼인해서 함께 이틀 밤을 지내고 또 하루 낮을 지냈다.

이에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돌려보내는 데 뱃사공이 모두 15명이니 이들에게 각각 쌀 10석과 베 30필씩을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8월 1일에 왕은 대궐로 돌아오는데 왕후와 한 수레를 타고, 잉신 내외도 역시 재갈을 나란히 수레를 함께 탔으며, 중국의 여러 가지 물건도 모두 수레에 싣고 천천히 대궐로 들어오니 이때 시간은 오정(午正)이 되려 하였다. 왕후는 이에 중궁(中宮)에 거처하고 잉신 내외와 그들의 사속(私屬)들은 비어 있는 두 집을 주어 나누어 들

어가게 하였고, 나머지 따라온 자들도 20여 칸 되는 빈관(賓館) 한 채를 주어서 사람 수에 맞추어 구별해서 편 안히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지급하는 것은 풍부하게 하고, 그들이 신고 온 진귀한 물건들은 내고(內庫)에 두고 왕후의 사시(四時)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

- 註 494 가락국기의 주석에서는 전산도(前山島)가 “京南島嶼也”라고 하였는데, 조선초기(1530년)의 지리 상황을 보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김해부가 바로 남쪽에 바다가 있고 그 부근에 많은 섬들이 있으며, 남쪽 15리 안에 덕도, 전산도, 곤지도가 있고 30리 밖으로 취도, 명지도, 덕형도가 있다고 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2 김해도호부 산천조). 이와 관련해 김태식은 경남 진해시 용원동 앞바다에 있던 조그마한 돌섬으로 비정되어 왔으나, 근래에 이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긴 전승으로서 믿을 바가 못되며 조선후기의 지리학자 김정호 등이 비정한 바와 같이 현재의 경남 김해시 풍유동, 명법동, 이동에 걸쳐 여러 봉우리가 이어져 있는 ‘칠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하였다(김태식, 「가락국기 소재 허황후 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 102, 한국사연구회, 1998, 9~10쪽).
- 註 495 승점(乘站)의 위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의견을 내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京都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 즉畿內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하고(이종기, 《가락국탐사》, 일지사, 1977, 59쪽), ‘궁궐가까이에 위치한 나라’를 뜻한다고 보기도 한다(최진원, 「한국신화고석-수로신화」, 《대동문화연구》 24, 76~79쪽). 김태식은 궁궐에 가까운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역시 봉황대로 보아야 하므로 봉황대로 추정하였다(김태식, 《가야연행사》, 일조각, 1993).
- 註 496 아유타국은 인도 갠지스 강의 상류인 사라유 강의 左岸에 있던 고대 도시국가인 아요디아(Ayodha)왕국이다(김태식, 《가야연행사》, 일조각, 1993). 아유타국의 실체에 대해 몇몇 견해가 있는데, 김석형은 아유타국을 일본에 있던 가락국의 分國으로 보았고(김석형, 《초기조일관계연구》, 사회과학원 출판사, 1966), 아요디아 왕가는 서기 20년 경에 크산의 군대에 의해 王都를 잃고 어디론가 떠났으며, 허황후가 5월에 배로 출발해서 7월에 도착하였는데 아요디아에 있는 갠지스강 상류까지는 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없으므로, 왕녀의 사실상의 출발지는 오늘날의 타이국의 메남 강가에 있는 옛 도시 아유타야로 추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아요디아 왕국이 1세기 전에 건설한 식민국이라고 한 이종기의 견해도 있다(이종기, 《가락국탐사》, 일지사, 1977, 99~100쪽). 한편 김병모는 타이 메남강 가에 건설한 식민국 아유타야는 부정하고 아요디아를 근원지로 보았다(김병모, 「가락국 허황후의 출자-아유타국(I)」, 《삼불김원흥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총》 1, 일지사, 1987 「고대한국서역관계-아유타국2」, 《한국사논총》 14, 1988 「가락국 수로왕비 탄생지」, 《한국상고사학보》 9, 1992).

주제분류	정치 > 왕실 > 국왕 > 활동(결혼·통치)
색인어	이름 : 유천간, 신귀간, 왕후, 신보, 조광, 모정, 황옥, 수로, 공주 지명 : 망산도, 별포, 모량 국명 : 승점, 아유타국, 가락국

권 제2 > 제2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관제를 정비하고 선정을 베푼다

어느 날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구간(九干)들은 모두 여러 관리의 으뜸인데, 그 직위와 명칭이 모두 소인(小人)·농부들의 칭호이고 고관 직위의 칭호가 아니다. 만약 외국에 전해진다면 반드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마침내 아도(我刀)를 고쳐서 아궁(我躬)이라 하고, 여도(汝刀)를 고쳐서 여해(汝諧), 피도(彼刀)를 피장(彼藏), 오방(五方)을 오상(五常)이라 하고, 유수(留水)와 유천(留天)의 이름은 윗 글자는 그대로 두고 아래 글자만 고쳐서 유공(留功)·유덕(留德)이라 하고 신천(神天) ^{註 497}을 고쳐서 신도(神道), 오천(五天)을 고쳐서 오능(五能)이라 했고, 신귀(神鬼)의 음(音)은 바꾸지 않고 그 훈(訓)을 고쳐 신귀(臣貴)라고 하였다.

계림(鷄林)의 직제(職制)를 취해서 각간(角干) ^{註 498}·아질간(阿叱干) ^{註 499}·급간(緞干) ^{註 500}의 차례를 두고, 그 아래의 관료는 주(周)나라 법과 한(漢)나라 제도를 가지고 나누어 정하니 이것은 이른바 옛것을 고쳐서 새것을 취하여 관직(官職)을 나누어 설치한 방법이었다.

이에 나라를 다스리고 집을 정돈하며,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니 그 교화(教化)는 엄숙하지 않아도 위엄이 있고, 그 정치는 엄하지 않아도 다스려졌다. 더욱이 왕후와 함께 사는 것은 마치 하늘에게 땅이 있고, 해에게 달이 있고, 양(陽)에게 음(陰)이 있는 것과 같았고 그 공은 도산(塗山)이 하(夏)를 돕고, 당원(唐媛)이 교씨(嬌氏)를 일으킨 것과 같았다.

그 해에 왕후는 꿈의 몽조(夢兆)를 꾸고 태자 거등공(居登公)을 낳았다.

- 註 497 서울대규장각본에는 神天이 없다.
- 註 498 신라 17관등제 가운데 제1관등으로 이벌찬(伊伐滄)이라고도 하였다.
- 註 499 신라 17관등제의 제6관등으로 아간(阿干)이라고도 하였다.
- 註 500 신라 17관등제의 제9관등으로 급찬(緞滄)이라고도 하였다.

주제분류	정치 > 왕실 > 국왕 > 활동(결혼·통치) 정치 > 행정 > 관직 > 중앙관직 정치 > 행정 > 관인 > 인사·제도 사회 > 인구 > 생로병사 > 출산 정치 > 왕실 > 왕족 > 태자·태자비
색인어	이름 : 아도, 아궁, 여도, 여해, 피도, 피장, 오방, 오상, 유수, 유천, 유공, 유덕, 신도, 오천, 오능, 신귀, 도산, 당원, 거등공 국명 : 계림, 주, 한, 하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수로왕과 왕후가 죽다(0189년 03월 01일(음))

영제(靈帝) 註 001 중평(中平) 註 002 6년 기사 3월 1일에 왕후가 죽으니 註 003 나이는 157세였다. 온 나라 사람들은 땅이 꺼진 듯이 슬퍼하고 구지봉(龜旨峰) 동북 언덕에 장사하였다. 드디어 왕후가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던 은혜를 잊지 않고자 처음 와서 닳줄을 내린 도두촌(渡頭村)을 주포촌(主浦村)이라 하고, 비단바지를 벗은 높은 언덕을 능현(綾峴)이라 하고, 붉은 기가 들어온 바닷가를 기출변(旗出邊)이라고 하였다.

임신 천부경(泉府卿) 註 004 신보(申輔)와 종정감(宗正監) 註 005 조광(趙匡) 등은 나라에 온 지 30년 후에 각각 두 딸을 낳았는데 부부는 1, 2년을 지나 모두 죽었다. 그 밖의 노비들도 이 나라에 온 지 7, 8년 사이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오직 고향을 그리워하는 슬픔을 품고 고향을 생각하다가 모두 죽어서 거처하던 빈관(賓館)은 텅 비고 아무도 없게 되었다.

왕은 이에 매양 외로운 베개를 의지하여 몹시 슬퍼하다가 10년을 지내고 헌제(獻帝) 註 006 입안(立安) 註 007 4년 기묘 3월 23일(199년)에 죽으니, 나이는 158세였다. 나라 사람들은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는 것이 왕후가 죽은 날보다 더하였다. 마침내 대궐 동북쪽 평지에 빈궁(殯宮)을 세웠는데 높이가 1장이고 둘레가 300보였고, 거기에 장사 지내고 수릉왕묘(首陵王廟)라고 하였다.

그의 아들 거등왕(居登王)으로부터 9대손 구충왕(仇衝王) 註 008까지 이 묘(廟)에 배향(配享)하고, 매년 정월(正月) 3일과 7일, 5월 5일과 8월 5일과 15일을 기다려 풍성하고 깨끗한 제물을 차려 제사를 지내어 대대로 끊이지 않았다.

註 001 후한(후한)의 제12대 황제로 재위 기간은 168년~189년이다.

註 002 후한 영제의 연호로 184년~188년에 사용하였다.

註 003 죽음에 대한 표현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각기 차등이 있어서 崩·薨·卒·亡·死로 표현한다.

註 004 중국 고대의 관직명. 천부(泉府)는 주나라 시대에 시세를 받는 일과 공비로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물품을 사들여 다시 그것을 원가로 파는 일을 맡아 물가를 조절하던 관아였다.

註 005 종정(宗正)은 주나라의 관제의 소종백(小宗伯)으로서, 진나라 때에 종정이라고 하였고, 후한대 이후에는 종정경이라고 하였다. 황족의 일을 담당하고 모두 황족으로 그 직에 임명하였다고 한다.

註 006 후한의 제14대 황제로 재위 기간은 190년~220년이다.

註 007 고려 태조의 이름인 建을 피휘한 것이다.

註 008 가락국기 뒷부분에는 '구형왕(仇衡王)으로 표기하였다.

주제분류	정치 > 왕실 > 국왕 > 신상 사회 > 의례 > 관혼상제 > 상제 사회 > 의례 > 제사 > 조상신
색인어	이름 : 신보, 조광, 수릉왕, 거등왕, 구충왕 지명 : 구지봉, 도두촌, 주포촌, 능현, 기출변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가야 멸망 이후 가야왕들의 제사(0661년 03월 (음))

신라 제30대 왕 법민왕(法敏) 註 001은 용삭(龍朔) 註 002 원년 신유 3월에 조서를 내렸다. “가야국(伽耶國) 시조(始祖) 註 003의 9대손 구충왕(仇衡王) 註 004이 이 나라에 항복할 때 이끌고 온 아들 세종(世宗)의 아들인 솔우공(率友公)의 아들 서운(庶云) 잡간(匝干)의 딸 문명황후(文明皇后)가 나를 낳았다. 따라서 시조 수로왕은 나에게 곧 15대 시조가 된다. 그 나라는 이미 멸망당했으나 그를 장사지낸 묘(廟)는 지금도 남아 있으니 종묘(宗廟)에 합해서 계속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겠다.” 인하여 그 옛 궁터에 사자(使者)를 보내서 묘에 가까운 상전(上田) 30경(頃) 공영(供營)의 비용으로 하여 왕위전(王位田)이라 부르고 본토(本土)에 소속시켰다. 수로왕의 17대손 갱세(廣世) 급간(緞干)이 조정의 뜻을 받들어 그 밭을 주관하여 매해 때마다 술과 단술을 빚고 떡·밥·차·과실 등 여러 맛있는 음식을 진설하고 제사를 지내어 해마다 끊이지 않게 하였다. 그 제사날은 거등왕이 정한 연중(年中) 5일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비로소 그 향기로운 효사(孝祀)가 우리에게 맡겨졌다.

거등왕이 즉위한 기묘에 편방(便房)을 설치한 뒤로부터 구충왕 말년에 이르는 330년 동안에 묘에 지내는 제사는 길이 변함이 없었으나 그 구충왕이 왕위를 잃고 나라를 떠난 후부터 용삭(龍朔) 원년 신유(661년)에 이르는 60년 사이에 이 묘에 지내는 제사지내는 예를 가끔 빠뜨리기도 하였다.

아름답도다, 문무왕(文武王) 법민왕(法敏王)의 시호이다은 먼저 조상을 받드니 효성스럽고 또 효성스럽다. 끊어졌던 제사를 다시 향하였다.

- 註 001 문무왕으로 신라의 제 30대 왕. 재위 기간은 661년~681년이다. 무열왕의 맏아들로 655년에 태자로 책봉되었고 660년에 김유신과 함께 당군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무열왕이 즉자 즉위하여 668년에 唐軍과 합세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러나 당나라가 백제·고구려의 옛 땅에 도호부를 설치하고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려고 하였으므로 676년에 당군을 축출하였다. 사후 동해 바다의 大王峯에 장사지냈다(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註 002 당 고종의 연호로 661년(문무왕 1)-663년(문무왕 3년)에 사용하였다.
- 註 003 시조 수로왕을 말한다.
- 註 004 가락국기 뒷부분에는 '구형왕(仇衡王)으로 표기하였다.

주제분류	사회 > 의례 > 제사 > 조상신
색인어	이름 : 법민왕, 구충왕, 세종, 솔우공, 서운, 문명황후, 갱세, 거등왕, 문무왕 국명 : 가야국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제사와 관련한 기이한 사건들

신라 말년에 충지(忠至) 註 511 잡간(匝干) 註 512이란 자가 있었는데 금관(金官) 고성(高城) 註 513을 쳐서 빼앗고 성주장군(城主將軍) 註 514이 되었다. 이에 영규(英規) 註 515 아간(阿干) 註 516이 장군의 위엄을 빌어 묘향(廟享)을 빼앗아 함부로 제사를 지냈는데, 註 517 단오(端午)를 맞아 사당에 제사를 지내다가 사당의 대들보가 이유 없이 부러져 떨어져서 인하여 깔려 죽었다. 이에 장군(將軍)이 스스로 말하기를 “다행히 전세(前世)의 인연으로 해서 외람되이 성왕(聖王)이 계시던 국성(國城)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니 마땅히 나는 그 진영(眞影)을 그리고 향(香)과 등(燈)을 바쳐 그옥한 은혜를 갚아야겠다”라고 하고, 교견(蛟絹) 註 518 3척을 가지고 진영을 그려 벽 위에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촛불을 켜 놓고 공손히 받들었다. 겨우 3일 만에 진영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서 땅 위에 고였는데 거의 한 말 정도가 되었다. 장군은 매우 두려워하여 그 진영을 받들어 가지고 사당을 나가서 불태우고 곧 수로왕의 친자손 규림(圭林)을 불러서 말하였다. “어제는 상스럽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거듭 생기는 것인가. 이는 필경 사당의 위령(威靈)이 내가 진영을 그려서 모시는 것을 불손(不遜)하게 여겨 진노한 것이다. 영규(英規)가 이미 죽었으므로 나는 몹시 괴이하고 두렵게 여겨 진영도 이미 태워 버렸으니 반드시 신(神)의 주살을 받을 것이다. 경은 왕의 진손(眞孫)이니 전에 하던 대로 제사를 받드는 것이 옳겠다.”

규림이 대를 이어 제사를 지내다가 나이 88세에 이르러 죽었고, 그 아들 간원경(間元卿)이 이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단오날 알묘제(謁廟祭) 때 영규의 아들 준필(俊必) 註 519이 또 발광(發狂)하여, 사당으로 와서 간원(間元)이 차려 놓은 제물을 치우고서 자기가 제물을 차려 제사를 지냈는데 삼헌(三獻) 註 520이 끝나지 못해서 갑자기 병이 생겨서 집에 돌아가서 죽었다.

그런데 옛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음사(淫祀)는 복(福)이 없고 도리어 재앙을 받는다.” 앞서 영규가 있고 뒤에는 준필이 있으니 이들 부자(父子)를 두고 한 말인가.

또 도적의 무리들이 사당 안에 금과 옥이 많이 있다고 해서 와서 그것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였다. 처음에 오자 몸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활에 살을 당긴 한 용사가 사당 안에서 나오더니 사면을 향해서 비오듯 화살을 쏘아서 7, 8명을 맞혀 죽이니, 나머지 도둑의 무리들은 달아났다. 며칠 후에 다시 오자 큰 구렁이가 있었는데 길이가 30여 척이나 되고 눈빛은 번개와 같았다. 사당 옆에서 나와 8, 9명을 물어 죽이니 겨우 살아남은 자들도 모두 넘어지면서 달아났다. 그리하여 능원(陵園) 안팎에는 반드시 신물(神物)이 있어 보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註 521

건안(建安) 註 522 4년 기묘에 처음 만든 때부터 지금 임금께서 註 523 즉위한지 31년인 대강(大康) 2년 註 524 병진(1076)까지 도합 878년인데 제단을 쌓아 올린 아름다운 흠이 이지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았고, 심어 놓은 아름다운 나무도 마르거나 썩지 않았으며, 하물며 거기에 벌여 놓은 수많은 옥조각들도 부서지지 않았다. 이것으로 본다면 신체부(辛替否) 註 525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찌 망하지 않은 나라와 파괴되지 않은 무덤이 있겠느냐”라고 말했지만, 오직 가락국이 옛날에 일찍이 망한 것은 곧 체부의 말이 맞지만 수로왕(首露王)의 사당이 허물어지지 않은 것은 곧 체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

註 511 태자사랑공대사백월서운담비문(太子寺朗空大使白月梧雲塔碑文)에 나오는 ‘金海府蘇公忠子知府’, 즉 김해 지방에 토착하던 호족 소총자(蘇忠子)로서, 효공왕 10년(906) 전후에 호족으로 등장하여 효공왕 15년(911)이전에 몰려났다.

註 512 신라관위 17계 중 제3위이다.

註 513 金官高城을 金官古城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옛 성’이라 해석하였다. 금관(金官)은 김해 지역의 고명(古名) ‘金官小京’에서 나온 말이다.

註 514 신라말기 지방호족들이 그 지방을 무력으로 정령하고 쓰던 칭호로, 성주와 장군을 겸하였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註 515 소총자(蘇忠子)가 김해 지방의 성주 장군이었던 시기에 그의 부장이나 제사담당관을 지낸 인물로 추정된다.

註 516 신라관위 17계 중 제6위이다.

註 517

영규(英規)가 지내려던 제사의 성격을 두고, 충지나 영규 등이 받들던 토속신앙이거나 그들의 조상신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대로 수로왕에 대한 제사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후 영규의 아들이 다시 수로왕에 대한 제사를 빼앗으려 한 사실로 보아,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노명호에 의하면 이는 사조에 대한 공동제사의 질서가 해체되던 나말여초 시기에 주제권을 둘러싼 혼란상을 드러내는 국면이라고 풀이된다(노명호, 『나말여초의 사회변동과 친족제도』, <<한국고대사연구>> 8, 1995, 70쪽).

- 註 518 남해 지방에서 나는 비단.
- 註 519 영규(英規)의 아들인 준필이 영규가 죽은 한참 뒤에도 김해 지방에 함께 살고 있으며 영규가 수로왕의 진손(眞孫)이 아니라는 것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수로왕(首露王) 후손 집단의 방계 인물로 보인다.
- 註 520 제사지낼 때 술잔을 세 번 올리는 일.
- 註 521 이러한 기록은 사당 훼손에 대한 수로왕손의 저항이 강했음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김해에서의 수로왕 사당에 대한 제례는 고려 때에 중시되다가 고려 말 잠시 폐허로 변했지만 조선조에 다시 중수되고 제례가 재개되었는데, 이는 곧 가락국의 왕족이 국가 멸망 이후 신라 및 고려·조선시대의 1,500년을 거치면서도 해당 지역의 패권을 장구하게 유지해 왔으며, 중앙 정권으로부터 그러한 존재를 인정받아왔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김태식, 『김해 수로왕릉과 허왕후릉의 보수과정 검토』, <<한국사론>> 40·41합, 1999).
- 註 522 후한(후한) 헌제(獻帝)의 연호로 196년~220년에 사용하였다.
- 註 523 고려 문종(文宗)을 지칭한다.
- 註 524 ‘태강(太康)’이나,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현존 판본들에서는 ‘太’가 대부분 ‘大’로 되어 있다. 이는 두 글자의 뜻이 통하는데다가 ‘大’의 음이 ‘대’와 ‘태’의 두 가지가 있었던 것에서 비롯된다. 태강은 요나라 도종(道宗)의 연호 가운데 하나로, 1075년부터 1085년까지 사용되었다.
- 註 525 당 중종(中宗)과 예종(睿宗)때 지나친 토목공사의 부담함을 상소하였다. 중국 당나라 시기의 간관. 중종 경용(景龍) 연간(707~710)에 좌상유(左拾遺)가 되었는데, 이 때에 공주부의 사치의 폐를 간하였고, 이어 예종 연간에도 시정의 잘잘못을 간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 열전).

주제분류	정치>신이>생물>사람·귀신 정치>신이>기타>기타 사회>의례>제사>조상신
색인어	이름 : 충지, 영규, 규림, 간원경, 준필, 간원, 신체부, 체부, 수로왕 국명 : 가락국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수로왕을 기리는 놀이

이 중에 또 놀이를 하여 수로왕을 사모하는 일이 있다. 註 526 매년 7월 29일에 註 527 백성·서리(胥吏)·군졸(軍卒)들이 승점에 올라가서 장막을 치고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떠들며 동서쪽으로 서로 눈짓을 보내고 건강한 인부들은 좌우로 나뉘어서 망산도 註 528에서 말발굽을 급히 육지를 향해 달리고 뱃머리를 註 529 동동 띄워 물 위로 서로 밀면서 북쪽 고포(古浦)를 향해서 다투어 달린다. 대개 이것은 옛날에 유천간과 신귀간 등이 왕후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급히 수로왕에게 아뢰던 옛 자취이다.

- 註 526 수로왕의 제사 참가자가 제신의 명덕(冥德)을 기리고 환락함을 표현한 것이다. 제사와 가무·음식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 註 527 놀이를 하는 날짜가 매년 7월 29일이고 하였는데, 설화 자체에서는 그 날짜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수로왕이 유천간(留天干)과 신귀간(神鬼干)에게 망을 보며 기다리게 한 것이 7월 27일이고, 수로왕이 허왕후와 함께 환궁한 것이 8월 1일인데, 그 이전에 두 사람이 동침할 때 왕게 객 밤을 두 번 보내고 대낮이 한 번 지나갔다고 하였으니, 허왕후가 도착한 날이 7월 29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김대식, 「가락국기 소재 허왕후 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 102, 1998, 30쪽).
- 註 528 최근의 지질학적 연구에 의해 김해평야가 생긴 것은 600여년 전부터의 일이며, 이전에는 김해시 중심가 바로 남쪽이 바다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이전의 바다 안에 있었다는 섬인 前山島가 망산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망산도, 즉 전산도는 조선후기(1861)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로 보아 칠점산과 명지도에 둘러싸인 내해의 작은 섬들 중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김해시 풍유동과 명범동, 이동에 걸쳐 여러 봉우리가 이어져 있는 칠산에 해당된다(김대식, 「가락국기 소재 허왕후 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 102, 1998, 9~10쪽).
- 註 529 익(鰻)은 백로 비슷한 새로서 뱃머리에 주로 천자가 타는 배에 그려지므로 뱃머리를 익수라고 부른다.

주제분류	문화 > 풍속·놀이 > 놀이
색인어	이름 : 유천간, 신귀간, 왕후, 수로왕 지명 : 승점, 망산도, 고포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가야 고지의 지명 변천(0681년 (음))

가락국이 망한 뒤로는 대대로 그 칭호가 한결같지 않았다. 신라 제31대 정명왕(政明王) 註 530이 즉위한 개요(開耀) 원년 신사에는 금관경(金官京)이라 이름하고 태수(太守)를 두었다. 註 531 그로부터 259년 후에 우리 태조(太祖) 註 0-1가 통합한 뒤로는 대대로 임해현(臨海縣)이라 하고 배안사(排岸使) 註 532를 둔 것이 48년이었으며, 다음에는 임해군(臨海郡) 혹은 김해부(金海府)라고 하고 도호부(都護府)를 둔 것이 27년이었으며, 또 방어사(防禦使) 註 533를 둔 것이 64년이었다.

註 530 신문왕을 말한다.

註 53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하 20년의 ‘伽鄑郡置金官小京’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무왕 20년(680)에 가야군에 금관소경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 직관지에는 태수는 군의 장관이므로 대윤(大尹)(仕臣)의 잘못일 것이다. 대윤은 소경의 장관으로 사대등이라고도 하고 관원은 5명이다. 진흥왕 25년(564)에 처음으로 설치하고 관동이 금천에서 파진찬까지로 임용된다.

註 0-1 원문에는 '太祖'로 되어 있다.

註 532 고려시대의 관직으로 보이거나 이 외에는 다른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다.

註 533 고려 문종(文宗) 때에 설치한 지방관직으로 5품 이상이였다.

주제분류
정치 > 행정 > 군현 > 군
정치 > 행정 > 군현 > 현

색인어
이름 : 정명왕, 태조
지명 : 금관경, 임해현, 임해군, 김해부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수로왕 능묘 소속 전담과 관련한 일화(0991년 (음))

순화(淳化) 註 534 2년에 김해부(金海府)의 양전사(量田使) 註 535 중대부(中大夫) 註 536 조문선(趙文善)은 조사해서 보고하였다. “수로왕의 능묘(陵廟)에 소속된 밭의 면적이 많으니 마땅히 15결을 가지고 전대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나머지는 부(府)의 역정(役丁) 註 537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맡은 관청에서 그 장계(狀啓)를 전하여 보고하자, 그때 조정에서는 명을 내렸다. “하늘에서 내려온 알이 화해서 성군(聖君)이 되었고 이내 왕위(王位)에 올라 오래 살았으니 곧 나이 158세가 되었다. 저 삼황(三皇) 註 538 이후로 이에 견줄 만한 이가 드물다. 봉어한 뒤에 선대(先代)부터 능묘(陵廟)에 소속된 전담을 지금에 와서 줄인다는 것은 진실로 의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고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양전사(量田使)가 또 거듭 아뢰자 조정에서도 이를 그렇다고 여겨 반은 능묘에서 옮기지 않고, 반은 그곳의 역정(役丁)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절사(節使) 양전사의 별칭이라는 조정의 명을 받아 이에 그 반은 능원(陵園)에 소속시키고 반은 부(府)의 부역하는 호정(戶丁)에게 주었다.

거의 일이 끝날 때에 양전사(量田使)가 몹시 피곤해 하더니 어느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7, 8명의 귀신이 나타나 밧줄을 가지고 칼을 쥐고 와서 말하였다. “너에게 큰 죄가 있어 베어 죽여야겠다.” 양전사는 형(刑)을 받고 몹시 아파하다가 놀라서 깨었다. 이내 병이 들었는데 남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밤에 도망가다가 그 병이 낫지 않아서 관문(關門)을 지나 죽었다. 이 때문에 양전도장(量田都帳) 註 539에는 그의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

그 뒤에 사신이 와서 그 밭을 검사해 보니 겨우 11결(結) 12부(負) 9속(束)이고 부족한 것은 3결 87부 1속이었다. 이에 모자라는 밭을 어찌했는가를 조사해서 내외궁(內外宮)에 보고하고, 칙명으로 그 부족한 것을 채워 주게 했는데 또한 고금(古今)에 탄식하는 자가 있었다.

註 534 북송(北宋) 태종(太宗)의 연호로 990년~994년에 사용하였다.
 註 535 <<고려사>> 백관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임시적으로 양전업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註 536 고려 문산계(文散階)의 하나이다. 문종 30년(1076)에 종4품 하로 정해졌으며, 전체 29등급 가운데 제9계에 해당하였다.
 註 537 부역을 맡은 장정.
 註 538 중국 고대의 천자 곧 복희씨·신농씨·황제씨이다.
 註 539 토지측량대장이다.

주제분류 정치 > 신이 > 기타 > 기타

색인어 이름 : 조문선, 수로왕
 지명 : 김해부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왕후사의 창건과 폐지(0452년 (음))

수로왕(首露王)의 8대손 김질왕(金銜王)은 정치에 부지런하고 또 참된 것을 매우 숭상하였는데 시조모(始祖母) 註 540 허황후(許皇后) 註 541를 위해서 그의 명복(冥福)을 빌고자 하였다. 원가(元嘉) 註 542 29년 임진에 수로왕과 허황후가 혼인한 곳에 절을 세우고 절 이름을 왕후사(王后寺) 註 543라 하였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근처의 평전(平田) 註 544 10결을 헤아려 삼보(三寶) 註 545를 공양하는 비용으로 하게 하였다. 註 546

이 절이 생긴 지 500년 註 547 후에 장유사(長遊寺) 註 548를 세웠는데, 이 절에 바친 밭이 도합 300결(結)이었다. 이에 장유사의 삼강(三綱) 註 549은 왕후사(王后寺)가 장유사의 밭 동남쪽 표(標) 안에 있다고 해서 왕후사를 폐해서 장사(莊舍)를 만들어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겨울에 저장하는 장소와 말을 기르고 소를 치는 마구간으로 만들었으니 슬픈 일이다.

- 註 540 원문에는 世祖母로 되어 있는 데 이하 세조와 시조가 섞여 쓰이고 있다. 세조모로만 볼 경우, ‘세조(世祖)의 어머니’로 해석하여, 여기서의 ‘世祖’를 수로왕이 아니라 수로왕과 허황후의 아들인 제2대 거증왕(居證王)으로 볼 수 있다. 그 밑의 ‘世祖 이하 9대손의 역수를 아래 자세히 기록한다.’고 한 문장에서 세조가 곧 거증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가락국기>> 말미의 역대 왕명을 기록한 곳의 질지왕조(銜知王條)에서 수로왕을 ‘世祖’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아,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김태식, 『가락국기 소재 허황후 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 102, 1998, 32쪽). 이에 여기서의 世祖母 역시 수로왕을 세조 호칭한 채, 그 부인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註 541 허황후를 ‘王后’라고 하지 않고 ‘皇后’라고 표현하였다. ‘皇后’와 ‘王后’ 표현이 번갈아 가면서 쓰이고 있다. 이 중 ‘王后’라는 칭호는 고려시대에 와서 보편화되나, <<삼국사기>>를 통해서 볼 때, 신라에서는 문무왕부터 경덕왕까지의 王母나 王妃에 대하여 ‘王后’ 칭호를 전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락국기>>의 왕후 사용례는 신라 중대의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김태식, 『가락국기 소재 허황후 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 102, 1998, 35쪽).
- 註 542 남조(南朝) 유송(劉宋) 문제(文帝)의 연호로 424년~453년에 사용하였다.
- 註 543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32 김해도호부 고적조(古跡條)에 왕후사(王后寺)의 구지는 장유산에 있다고 한다. 이를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와 비교해볼 때, 지금의 장유면 장유리 남쪽의 옥녀봉에 해당한다(김태식, 『가락국기 소재 허황후 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 102, 1998, 36쪽).
- 註 544 보통급의 밭.
- 註 545 불보(佛寶)·법보(法寶)·승보(僧寶)를 말한다.
- 註 546 이 기록은 수로왕의 수도 지정과정과 불교국의 허황옥(許黃玉)을 왕비로 맞이한 것과 함께 가야에서 불교가 성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된다(윤석효, 『가야의 불교수용에 관한 연구』, <<한성대논문집>> 15, 1, 1991, 207쪽, 216~217쪽). 반면 이에 대하여 가야의 불교는 건국 초 일찍이 인도로부터 전래되었으나 사회적으로 수용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을 요하였고, 질지왕(銜知王)대에 와서 비로소 왕실불교로 자리잡게 된 것이라고 본 견해가 있다(홍윤식, 『가야불교에 대한 제문제와 그 사적 고찰』, <<가야고고학논총>> 1, 가야문화연구소, 1992, 235쪽). 이에 더해 가락국이 신라보다 앞서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해도 가락국의 전반적 사회발전 수준이 신라에 못미치고 있었던 만큼, 불교의 유포는 제한적이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김태식, 『가락국기 소재 허황후 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 102, 1998, 32쪽).
- 註 547 원문에서는 五百 뒤에 年 또는 歲가 생략되었다.
- 註 548 오늘날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일대에 있었던 절로 추정된다.
- 註 549 사찰의 관리와 운영의 임무를 맡은 세 가지 승직을 말한다. 상좌·사주·유나 또는 승정(僧正)·승도(僧都)·율사(律師)이다.

주제분류 문화 > 사상 > 불교사상 > 사원·단월

색인어 이름 : 수로왕, 김질왕, 허황후

권 제2 > 제2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가락국의 사적

시조 이하 9대손의 역수(曆數)는 아래에 자세히 기록하니 그 명(銘)은 이러하다.

처음에 천지가 열리니, 이안(利眼)이 비로소 밝았다. 인륜(人倫)은 비록 생겼지만, 임금의 지위는 아직 이루지 않았다.

중국은 여러 대를 지냈지만, 동국(東國)은 서울을 나누어 계림(鷄林)이 먼저 정해지고, 가락국(駕洛國)이 뒤에 경영(經營)되었다.

스스로 맡아 다스릴 사람 없으면, 누가 백성을 보살피겠는가. 드디어 상제(上帝)께서, 저 창생(蒼生)을 돌보았다.

여기 부명(符命) ^{註 550}을 주어, 특별히 정령(精靈)을 보냈다. 산 속에 알이 내려오니 안개 속에 모습을 감추었다.

안은 오히려 아득하고, 밖도 또한 캄캄하였다. 바라보면 형상이 없는 듯하나 들으니 여기 소리가 있었다.

무리들은 노래 불러 아뢰고, 춤을 추어 바쳤다. 7일이 지난 후에, 한때 안정되었다.

바람이 불어 구름이 걷히니 푸른 하늘이 맑게 개었다. 여섯 개 둥근 알이 내려오니, 한가닥 자색 줄에 드리웠다.

낮선 땅에, 집과 집이 연이었다. 구경하는 사람은 줄지었고, 바라보는 사람 우글거렸다. ^{註 551}

다섯은 각 고을로 돌아가고, 하나는 이 성에 남아 있었다. 같은 때 같은 자취는, 아우와 같고 형과 같았다.

진실로 하늘이 덕을 낳아서, 세상을 위해 질서를 만들었다. 왕위에 처음 오르니 온 세상은 곧 맡아지려 하였다.

궁전은 옛 법을 따랐고, 휴계단은 오히려 평평하였다. 만기(萬機)를 비로소 힘쓰고, 모든 정치를 베풀었다.

기울지도 치우치지도 않으니, 오직 하나이고 오직 정밀하였다. 길 가는 자는 길을 양보하고, 농사짓는 자는 밭을 양보하였다.

사방은 모두 안정되고, 모든 백성은 태평을 맞이하였다. 갑자기 풀잎의 이슬처럼, 대춘(大椿)의 나이를 보전하지 못하였다.

천지의 기운이 변하고 조야(朝野)가 모두 슬퍼하였다. 금과 같은 그의 발자취요, 옥과 같이 떨친 그 이름이었다.

후손이 끊어지지 않으니, 영묘(靈廟)의 제사가 오직 향기로웠다. 세월을 비록 흘러갔지만, 규범(規範)은 기울어지지 않았다.

註 550 하늘이 제왕이 될 사람에게 주는 표식, 또는 천자가 제후를 임명할 때 주는 규옥(圭玉)을 말한다.

註 551 끊는 국처럼 들끓는다는 의미로 많다는 뜻이다.

주제분류	정치 > 왕실 > 국왕 > 활동(결혼·통치)
색인어	지명 : 동국 국명 : 계림, 가락국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거등왕(0199년 03월 13일(음))

아버지는 수로왕(首露王), 어머니는 허황후(許皇后)이다. 건안(建安) 註 552 4년 기묘 3월 13일에 즉위하였다. 치세는 39년으로 註 553 가평(嘉平) 註 554 5년 계유 9월 17일(253년)에 죽었다. 왕비는 천부경(泉府卿) 註 555 신보(申輔)의 딸 모정(慕貞) 註 556으로 태자(太子) 마품(麻品)을 낳았다. 《개황력(開皇曆)》 註 557에는 “성(姓)은 김씨(金氏)이니 대개 시조(始祖)가 註 558 금란(金卵)에서 난 까닭에 김을 성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註 559

- 註 552 후한(후한) 헌제(獻帝)의 연호로 196년~220년에 사용하였다.
- 註 553 거등왕의 재위 기간은 199~253년이므로 55년이 된다.
- 註 554 위(魏) 제왕(齊王)의 연호로 249년~254년에 사용하였다.
- 註 555 중국 고대의 관직명이다. 천부(泉府)는 주나라 시대에 시세를 받는 일과 공비로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물품을 사들여 다시 그것을 원가로 파는 일을 맡아 물가를 조절하던 관이었다. 그 이후에도 언급되는 관직이나 사람의 이름이 모두 중국식임이 주목된다.
- 註 556 모정(慕貞)은 앞에서는 신보(申輔)의 처로 나왔던 인물이다. 어머니와 딸의 이름이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기록 자체의 오류인 것인지 불분명하다.
- 註 557 가락국기의 말미에는 《개황록(開皇錄)》이라고도 하였다. 개황은 수의 연호며 581~600년까지로, 금관가야 멸망 이후 신라 진평왕대에 해당한다. 금관가야의 왕실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추측되는데, 김유신, 文明王后 등 가야계 후손의 정치적 비중이 절정에 달하고 금관수경을 설치하기도 한 문무왕대를 전후한 시기에 편찬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김태식, 《가야연행사》, 일조각, 1993, 71~72쪽 | 남재우, 「가야의 건국신화와 제의」, 《한국고대사연구》 제39권, 2005, 85~89쪽). 반면 《개황록(開皇錄)》의 개황을 수의 연호가 아닌 ‘황국을 개창하였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나말여초 가락계 사람들이 과거의 왕손임을 드러내려 가락시조 수로왕이 皇命의 명으로 가락국을 개창하여 심세 구형왕까지를 기록한 사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정중환, 「가락국기의 문헌학적 고찰」, 《가야문화》 제3호, 1990, 43~44쪽).
- 註 558 금란(金卵)에서 태어난 것은 세조(거등왕)가 아니라 수로왕이므로, 시조인 수로왕을 지칭할 때 국세조라는 표현도 함께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註 559 이는 ‘김해 김씨’의 기원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와 달리 《삼국사기》 권41, 열전1에서는 김유신비문에 전하는 바 ‘(수로가) 현천(軒轅)의 후예요, 소호(少昊)의 직계’라는 내용에 의거하여 김씨성을 삼았다고 한다. 신라의 ‘김씨 금관설’ 유형은 《삼국유사》 기이1의 김알지설화에도 나타나고 있으나, 《북제서(北齊書)》 권7(하청 4년(565) 2월 갑인)에 근거하는 한 김씨성의 사용은 진흥왕대에 처음으로 보이고 있다. 황금알에서 난 까닭에 김씨라 불렀다는 《개황력(開皇曆)》은 가야 멸망 이후 편찬된 것이고, 김유신 비문에 7세기 후반에 건립된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7세기 중반 이전에는 ‘김해 김씨’의 유래에 대한 일차적 정리가 이루어졌다고 추정되고 있다(백승훈, 「가야의 개국설화에 대한 검토」, 《역사와 현실》 제33권, 1999, 117~118쪽). 이를 두고 통일기 무렵 가야 김씨 세력의 성씨 취득 이후 이들 김해김씨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수로왕 난생담의 내용을 경주김씨의 시조라고 하는 김알지신화와 유사한 형태로 윤색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남재우, 「가야의 건국신화의 제의」, 《한국고대사연구》 제39권, 2005, 86~87쪽).

주제분류	정치 > 왕실 > 국왕 > 즉위·핵심 정치 > 왕실 > 왕족 > 선조·선대왕·선왕 정치 > 왕실 > 왕족 > 왕모후·왕태후·왕대비 정치 > 왕실 > 왕족 > 왕후·왕비 정치 > 왕실 > 왕족 > 태자·태자비 사회 > 사회조직 > 신분 > 성씨
색인어	이름 : 수로왕, 허황후, 신보, 모정, 마품 서명 : 개황력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마품왕(0253년 (음))

마품(馬品)이라고도 하며, 김씨이다. 가평(嘉平) 5년 계유에 즉위하였다. 치세는 39년으로, 註 560 영평(永平) 註 561 원년 신해 1월 29일(291년)에 죽었다. 왕비는 중정감(宗正監) 註 562 조광(趙匡)의 손녀 호구(好仇)로 태자(太子) 거질미(居叱彌)를 낳았다.

註 560 <<삼국유사>> 왕력편에서는 32년간 재위한 것으로 나와 있다.

註 561 서진(西晉) 혜제(惠帝)의 연호로 291년에 사용하였다.

註 562 종정(宗正)은 주나라 관제의 소종백(小宗伯)으로서, 진나라 때에 종정이라고 하였고, 후한대 이후에는 종정경이라고 하였다. 황족의 일을 담당하고 모두 황족으로 임명하였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된 천부경은 물론 종정감이라는 관직명이 실제로 가락국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극히 어렵고, 아마도 7세기 중엽 이후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관계가 긴밀해지면 서 중국 관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 이후에 부회된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분류	정치 > 왕실 > 국왕 > 즉위·해봉 사회 > 사회조직 > 신분 > 성씨 정치 > 왕실 > 왕족 > 왕후·왕비 정치 > 왕실 > 왕족 > 태자·태자비
색인어	이름 : 마품, 조광, 호구, 거질미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거질미왕(0291년 (음))

금물(今勿)이라고도 하며 김씨이다. 영평(永平) 원년에 즉위하였다. 치세는 56년으로 註 563 영화(永和) 註 564 2년 병오 7월 8일(346년)에 죽었다. 왕비는 아궁(阿躬) 註 565 아간(阿干) 註 566의 손녀 아지(阿志) 註 567로 왕자(王子) 이시품(伊尸品) 註 568을 낳았다.

註 563 <<삼국유사>>의 왕력편에서는 재위 기간을 55년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즉위한 해를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註 564 동진(東晉) 목종(穆宗)의 연호로 345년~356년에 사용하였다.

註 565 아도간(阿刀干)을 고친 직명이다.

註 566 신라 17관등 중 6관등으로 아찬(阿滄), 아척간(阿尺干) 또는 아찬(阿槩)이라고도 한다(권덕영, 「신라관등 아찬·나마에 대한 고찰」, <<국사관논총>> 21, 1991).

註 567 여기서는 고유명사로 되어 있으나 일반명사인 阿只와 같은 뜻이며, 아기의 경어이다.

註 568 다음에 이시품(伊尸品)이라고도 한다.

주제분류	정치 > 왕실 > 국왕 > 즉위·책봉 정치 > 왕실 > 왕족 > 왕후·왕비 정치 > 왕실 > 왕족 > 왕자·공주·왕제·왕손
색인어	이름 : 금물, 아궁, 아지, 이시품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이시품왕(0346년 (음))

김씨이고 영화(永和) 2년에 즉위하였다. 치세는 62년으로 註 569 의희(義熙) 註 570 3년 정미 4월 10일(407년)에 죽었다. 왕비는 사농경(司農卿) 註 571극충(克忠)의 딸 정신(貞信)으로 왕자 좌지(坐知)를 낳았다.

- 註 569 <<삼국유사>> 왕력편에서는 60년간 재위한 것으로 나온다.
- 註 570 동진(東晉) 안제(安帝)의 연호로 405년~418년에 사용하였다.
- 註 571 가야국의 관직으로 농사일을 맡아본 듯하나 기록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주제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 왕실 > 국왕 > 즉위·책봉 정치 > 왕실 > 왕족 > 왕후·왕비 정치 > 왕실 > 왕족 > 왕자·공주·왕제·왕손
색인어	이름 : 극충, 정신, 좌지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좌지왕(0407년 (음))

김질(金叱)이라고도 한다. 의희(義熙) 3년에 즉위하였다. 용녀(傭女) 註 572에게 장가를 들어 여자의 무리를 관리로 삼으니 나라 안이 소란스러웠다. 계림국(鷄林國) 註 573이 꾀를 써서 치려하니, 박원도(朴元道) 註 574라는 신하가 간하여 말하기를 “유초(遺草)를 보고 또 보아도 역시 털이 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이겠습니까. 하늘이 망하고 땅이 꺼지면 사람이 어느 곳에서 보전하겠습니까? 또 점쟁이가 점을 쳐서 해괘(解卦) 註 575를 얻었는데, 그 점괘의 말에 ‘소인(小人)을 없애면 군자(君子)가 와서 도울 것이다’ 註 576 라고 했으니 왕께선 역(易)의 괘를 살피시옵소서”라고 하니 왕은 사과하여 “옳다.”고 하고 용녀를 내쳐서 하산도(荷山島) 註 577에 귀양보내고, 정치를 고쳐 행하여 길이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렸다. 치세는 15년으로 註 578 영초(永初) 註 579 2년 신유 5월 12일(421년)에 죽었다. 왕비는 도령(道寧) 대아간(大阿干) 註 580의 딸 복수(福壽)로, 아들 취희(吹希)를 낳았다.

- 註 572 풍을 팔아 살아가는 여자라는 뜻이다.
- 註 573 신라를 이르는 말이다.
- 註 574 박씨 성을 가진 인물이 이 시기에 실제로 가락국에 있었는지 의문이다. 아마도 후대에 윤색이 가해진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 註 575 <<주역(周易)>>의 64괘 가운데 40번째에 해당하는 괘. 밖으로는 우레가 동하고 아래로는 험한 물이 있어, 험한 과정을 지나 마침내 풀리는 것을 상징한다. ‘解’자에는 쇠뿔을 뺀다는 자의가 들어있는 바, 쇠뿔을 단숨에 뽑듯이 풀 때는 과감하게 행하여야 함을 뜻한다.
- 註 576 <<역경(易經)>>의 해괘(解卦)에서 나온 말로 소인의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면, 즉 여기서는 용녀와의 관계를 없애면 그 무리들은 후회하여 악을 고치고 내부한다. 즉 신변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없애면 왕위가 안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註 577 김해부근 바다에 있는 섬으로 추측되나 분명히 알 수 없다.
- 註 578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즉위한 해를 계산에 넣지 않아 14년간 재위한 것으로 나온다.
- 註 579 남조(南朝) 송(宋) 무제(武帝)의 연호로 420년~422년에 사용하였다.
- 註 580 신라 17관등제의 제5관등에 해당하는 ‘대아찬(大阿湊)’의 다른 이름이나, 이 시기에 관연 ‘대아간(大阿干)’이라는 관등이 가락국에 실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주제분류	정치 > 왕실 > 국왕 > 즉위·해봉 정치 > 왕실 > 왕족 > 왕후·왕비 정치 > 왕실 > 왕족 > 왕자·공주·왕제·왕손 정치 > 왕실 > 국왕 > 활동(결혼·통치)
색인어	이름 : 김질, 용녀, 박원도, 도령, 복수, 취희 지명 : 하산도 국명 : 계림국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취희왕(0421년 (음))

질가(叱嘉)라고도 한다. 김씨로 영초(永初) 2년에 즉위하였다. 치세는 31년으로 註 581 원가(元嘉) 28년 신묘 2월 3일(451년)에 죽었다. 왕비는 진사(進思) 각간 註 582의 딸 인덕(仁德)으로 왕자(王子) 질지(銍知)를 낳았다.

註 581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즉위한 해를 계산에 넣지 않아 30년으로 나온다.

註 582 신라의 경위(京位) 17관등 중 최상의 관등인 이벌찬(伊伐滄)의 다른 명칭으로 이벌간(伊伐干), 우벌찬(于伐滄), 각찬(角滄), 서벌현(舒發翰), 서벌강(舒伐鄕)이라고도 한다. 각간이라는 관등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권1 지마이사금(祇摩尼師今)조에 기록되어 있다. 진골(眞骨)만이 오를 수 있는 관등으로 종대에 이르러 그 위에 대각간·태대각간 등의 상위 관등을 두어 김유신처럼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기도 하였다(서의식, 「신라 상대(上代)·간(干)층의 형성·분화와 중위제(重位制)」,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4 | 김철준, 「고구려 신라 관계조직의 성립과정」, <<한국고대사학회연구>>, 지식산업사, 1975).

주제분류	정치 > 왕실 > 국왕 > 즉위·해봉 정치 > 왕실 > 왕족 > 왕후·왕비 정치 > 왕실 > 왕족 > 왕자·공주·왕제·왕손
색인어	이름 : 질가, 진사, 인덕, 질지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질지왕(0451년 (음))

금질왕(金銚王)이라고도 한다. 註 583 원가(元嘉) 28년에 즉위하였고 이듬해에 시조 註 584와 허황옥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처음 시조(始祖)와 혼인한 곳에 절을 지어 왕후사(王后寺)라 하고 밭 10결(結)을 바쳐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 치세는 42년으로 註 585 영명(永明) 註 586 10년 임신 10월 4일(492년)에 죽었다. 왕비는 김상(金相) 사간(沙干) 註 587의 딸 방원(邦媛)으로 왕자 겸지(鉗知)를 낳았다.

- 註 583 '一云銚, 金氏'로 고쳐야 한다는 설이 있다.
- 註 584 원문에는 世祖라고 표기되어 있다.
- 註 585 <<삼국유사>> 광력편에는 36년간 재위한 것으로 나온다.
- 註 586 남조(南朝) 제(齊) 무제(武帝)의 연호로 483년~493년에 사용하였다.
- 註 587 신라 17관등제에서 제8관등에 해당하는 '사찬(沙澣)'의 다른 이름이다.

주제분류	정치 > 왕실 > 국왕 > 즉위·해봉 문화 > 사상 > 불교사상 > 사원·단월 정치 > 왕실 > 왕족 > 왕후·왕비 정치 > 왕실 > 왕족 > 왕자·공주·왕제·왕손
색인어	이름 : 금질왕, 시조, 허황옥왕후, 방원, 겸지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경지왕(0492년 (음))

금검왕(金鉗王)이라고도 한다. 註 588 영명(永明) 10년에 즉위하였다. 치세는 30년으로, 註 589 정광(正光) 註 590 2년 신축 4월 7일(521년)에 죽었다. 왕비는 출충(出忠) 각간(角干)의 딸 숙(淑)으로 왕자 구형(仇衡)을 낳았다.

註 588 '一云鉗, 金氏'로 고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註 589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즉위한 해를 계산에 넣지 않아 29년으로 나온다.

註 590 북위(북위(北魏)) 효명제(孝明帝)의 연호로 520년~524년에 사용하였다.

주제분류	정치 > 왕실 > 국왕 > 즉위·해봉 정치 > 왕실 > 왕족 > 왕후·왕비 정치 > 왕실 > 왕족 > 왕자·공주·왕제·왕손
색인어	이름 : 금검왕, 출충, 숙, 구형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구형왕(0521년 (음))

김씨(金氏)이다. 정광(正光) 2년에 즉위하였다. 치세는 42년으로 註 591 보정(保定) 2년 註 592 임오 9월(562년)에 신라 제24대 진흥왕(眞興王) 註 593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오니 왕은 친히 군사를 지휘하였다. 註 594 그러나 적병의 수는 많고 이쪽은 적어서 대전(對戰)할 수가 없었다. 이에 동기(同氣) 탈지이질금(脫知爾叱今) 註 595을 보내서 본국에 머물러 있게 하고, 왕자와 상손(上孫) 줄지공(卒支公) 등은 항복하여 신라에 들어갔다. 왕비는 분질수이질(分叱水爾叱) 註 597의 딸 계화(桂花)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세종(世宗) 각간, 둘째는 무도(茂刀) 각간, 셋째는 무득(茂得) 각간 註 598이다.

《개황록(開皇錄)》에 보면, “양(梁)나라 무제(武帝) 중대통(中大通) 註 599 4년 임자(532년)에 신라에 항복하였다”고 하였다.

- 註 591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12년간 재위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옳다. 여기서는 고령 지역의 대가야의 멸망 연도를 가락국의 멸망 연도로 혼동하여 구형왕의 재위 연수를 42년으로 잘못 적어놓은 것이다.
- 註 592 북주(북주(北周)) 무제(武帝)의 연호로 561년~565년에 사용하였다.
- 註 593 신라의 제24대 왕으로 540년에 7세 혹은 15세의 어린나이에 즉위하여 576년까지 재위하였다. 진흥왕은 축령을 넘어 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는 등 강역을 크게 확장하였다. 또 국경 지방을 순수하고 창녕,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에 순수비와 탁경비를 세웠다. 진흥이라는 칭호는 본서에서 시호라 하였으나, 진흥왕 순수비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생존 시의 칭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화랑도라는 청소년 집단을 공인하여 인재등용의 길로 이용하였고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으며 황룡사 장육존상을 주조하였고 팔관회를 최초로 개최하였다(정구복 외<<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註 594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23년(562)조에는 이해 9월 ‘가야’가 반란을 일으켜 이사부(異斯夫)와 사다함(斯多含) 등으로 하여금 토벌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는 대가야의 멸망을 의미하며, <<가락국기(駕洛國記)>> 편자는 대가야의 멸망과 금관가야의 멸망을 혼동한 것이므로 금관가야의 멸망은 <<개황록(開皇錄)>>이 전하는 532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 註 595 동기(同氣)는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탈지(脫知)는 인명. 이질금(尔叱今)은 존칭이다. 그러나 가락국 당시에 왕의 아우에 대해 ‘이질금(尔叱今)’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 註 597 앞서 나온 ‘尔叱今’을 줄인 말이 아닐까 여겨진다.
- 註 598 <<삼국사기>>에는 長日奴宗, 仲日武德, 季日武力이라고 되어 있다.
- 註 599 양은 남조의 하나이다. 건강(建康)(현 南京)에 도읍하였으며, 557년에 멸망하였다. 중대통(中大通)은 무제(武帝)의 네 번째 연호(529~535)이다.

주제분류	정치 > 왕실 > 국왕 > 즉위·해봉 정치 > 군사 > 전쟁 > 전투이유 정치 > 군사 > 전쟁 > 전쟁결과 정치 > 왕실 > 왕족 > 왕후·왕비 정치 > 왕실 > 왕족 > 왕자·공주·왕제·왕손
색인어	이름 : 진흥왕, 탈지이질금, 줄지공, 분질수이질, 계화, 세종, 무도, 무득 서명 : 개황록

권 제2 > 제2 기이(紀異第二) > 가락국기(駕洛國記) > 일연이 논평하다

논평하여 말한다. 《삼국사(三國史)》를 살펴보면, 구형왕(仇衡王)은 양(梁)의 무제(武帝) 중대통(中大通) 4년 임자(壬子)에 땅을 바쳐 신라에 항복하였다고 한다. 註 600 그렇다면 수로왕이 처음 즉위한 동한(東漢)의 건무(建武) 18년 임인(42년)으로부터 구형왕 말년 임자(532년)까지를 註 601 계산하면 490년이 된다. 만약 이 기록으로 상고한다면 땅을 바친 것은 원위(元魏) 註 602 보장(保定) 2년 임오(562년)이다. 그러면 30년을 더하여 포함 520년이다. 지금 두 가지 설(說)을 모두 기록해 둔다.

註 60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법흥왕 19년조 참조

註 601 가야의 건국 연대를 서기전 2세기로 올려보고 가야는 위만조선시대에 성립되었으며 수로왕은 가야의 시조가 아니라 여섯 가야의 연맹체가 형성될 때 그 맹주였던 인물이라고 본 연구도 있다(이병도, 「수로왕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1981, 314-322쪽). 반면 가야의 건국연대를 서기42년이 아닌 서기 2세기경이나 그 이후로 낮추어 보려는 견해의 경우, 수로왕의 재위 기간이 158년간이나 된다는 점을 비롯해 고려 문종 말기 舍官知州事가 찬술한 것을 요약해서 실은 《가락국기(駕洛國記)》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락국기(駕洛國記)》에서 참고했다는 《개황력(開皇曆)》에 실린 가야국의 왕력은 신라의 왕력과의 관계 아래서 정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또한 고고학적 발굴 성과 결과 경해서 일대가 문화층상으로 대두하는 시기는 3세기 후반이라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40-41쪽; 김태식, 「가락국기 소재 허왕후 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 102, 1998, 7쪽). 이와 달리 서기 42년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삼국사기》 김유신전에도 동일한 연대가 실려 있다는 점, 가야왕실의世系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왕명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서기전 1세기경의 국경변화와 사회 혼란 속에서 가야가 건국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주장되고도 있다(윤내현, 「가야의 건국과 성장에 대한 재고찰」, 《사학지》 30, 1, 1997, 32-36쪽).

註 602 북위(北魏)를 말한다. 그러나 562년 당시 이는 이미 멸망한 상태였고, 대신 북주(北周)가 들어서 있었다.

주제분류	정치 > 왕실 > 국왕 > 활동(결혼·통치)
색인어	이름 : 구형왕, 수로왕 서명 : 삼국사 국명 : 신라